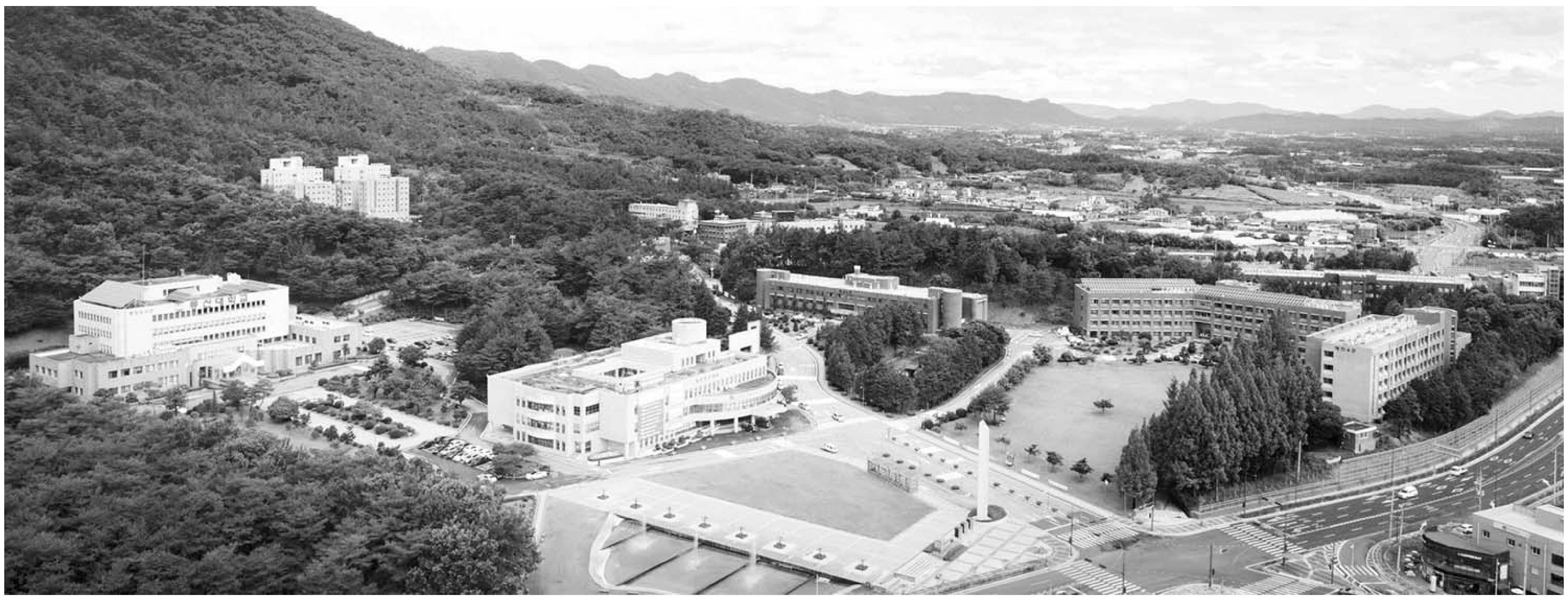
파격적인 장학 혜택 통해 우수 인재 확보 '주력'

동신대학교

'학생 중심 대학' 동신대가 2022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파격적인 장학 혜택을 통해 우수 신입생 유치에 나선다.

동신대는 우수 인재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에 입학해 자신의 꿈을 향해 매진할 수 있도록 수시 모집 일반학과(한의학과·간호학과·물리치료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 최초합격자 모두에게 입학 등록금(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우수 인재 장학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전체 39개 중 36개 학과 학부의 최초합격자들은 입학등록금이 말 그대로 '0원'이다.



3년 연속 광주·전남(졸업생 1천명 이상 일반대학) 취업률 1위, 최근 11년 가운데 9년간 취업률 1위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동신대 캠퍼스 전경.

전체 39개 중 36개 학과 학부 최초합격자 입학등록금 '0원'
수업료 면제 파격 혜택 병행…수능·학생부 우수장학금 제공
간호·물리치료학과 최초·일반학과 충원 합격자 100만원 지급
3년 연속 광주·전남(졸업생 1천명 이상 일반대학)취업률 1위

◇다양한 장학혜택 '주목'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최초 합격자들에게는 입학 장학금 100만원을 준다. 수시 모집 일반학과 충원 합격자에게는 100만원의 입학 장학금을 지급한다.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일반학과 수능 우수장학금과 학생부 우수장학금도 마련했다.

수능 국어·수학·영어·탐구(2과목 평균) 4개 영역의 평균 등급 3.75 이내 학생에게는 4년간(8학기) 등록금 전액을 감면한다.

▲4.25등급 이내 4학기 등록금 전액 ▲4.50등급 이내 입학 등록금 전액 ▲5.00등급 이내 입학 등록금 50%를 장학금으로 준다.

학생부 우수장학금은 ▲1.00등급 2학기 등록금 전액 ▲2.00등급 이내 입학 등록금 전액 ▲3.00등급 이내 입학 등록금 50% 감면 혜택을 준다.

의료보건 계열의 경우 간호학과는 수능 평균 4.00등급, 물리치료학과는 4.75등급까지 장학금을 주며 단과대학 수석에게는 1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체육특기자, 대회 입상자, 어학 우수자들에게는 최대 입학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주고 농어촌학생, 특성화고 학생, 다문화 가족 구성원에게는 입학시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준다.

이와 함께 ▲DS장학금 ▲1가구 2가족 장학금 ▲동신대 출신 자녀 장학금 ▲유관기관 가족장학금 ▲희망장학금 ▲실감미디어산업 인력양성 장학금 ▲보훈장학금 ▲새터민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이 주어진다.

동신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홍보대사들이 대학 홍보에 나서고 있다.

동신대는 입학생뿐만 아니라 재학생 장학금도 풍성하다.

2020학년도 전체 재학생 6천65명(1 2학기 평균) 중 1천535명(25.3%)이 1년 전액 장학금을, 2천220명(36.6%)이 한 학기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한 번이라도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6천339명(휴학생 포함)에 달해 평균 재학생 수를 웃돌았다.

◇높은 취업률·국시에 강한 대학

동신대는 3년 연속 광주 전남(졸업생 1천명 이상 일반대학) 취업률 1위를, 최근 11년 가운데 9년 동안 취업률 1위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취업의 질도 뛰어나다. 최근 2년 동안 혁신도시 공기업 정규직으로 26명이 취업했으며, 공무원과 교사 150여 명을 배출했다.

이 뿐 아니라 보건의료계열 국가시험 합격률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최근 2년간 815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특히 전국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합격률을 기록하며 국시에 강한 대학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최일 동신대 총장은 "최근 정부가 소득분위 7-8분위 학생들까지 국가장학금 350만원 확대 지원을 발표함에 따라 사실상 대부분의 신입생들이 전액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됐다"며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취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 혜택과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

2022학년도 수시 1천626명 선발

문·이과, 예·체능 구분 없이 교차 지원 가능

동신대는 2022학년도 수시 모집으로 39개 학과 학부, 1천626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전체 모집 인원의 98.4%로, 한의예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를 제외한 36개 학과 및 학부가 수시 모집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한다.

학생부교과 1천518명(정원내 1천433·정원외 85명), 실기위주로 108명을 뽑는다.

학생부교과 일반전형과 지역학생전형은 학생부 100%(교과 성적 80%+출결 20%)로 선발하며, 면접전형은 학생부 70%와 면접 30%를 합산한다. 한의예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만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며 면접평가 결시자는 다른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된다.

실기위주 일반전형(학생부 40%+실기 60%)으로 뮤지컬·실용음악학과, 태권도학과, 공연예술무용학과 각 30명을, 특기자전형(학생부 10%+경기실적 90%)으로 생활체육학과 13명과 운동처방학과 5명을 선발한다.

수시 모집 전형간 최대 2회 지원이 가능하지만 동일전형 내 복수 지원은 할 수 없다. 문·이과, 예·체능 구분 없이 교차 지원은 가능하다. /김동수 기자

CMYK